

6월 1주(2015.6.1~5) WTO 동향

※ (출처 : 통상전문지) Washington Trade Daily, Inside US Trade, Bridges Weekly

1. DDA 협상

- **DDA 작업계획 목표수준 조정(recalibration) 관련, 회원국간 이견 지속**
 ("Ministerial' Help Needed", 6.2 WTD / "No Progress on Doha in Paris", 6.5 WTD / "Doha Talks Stalled Despite Shift To Market Access To Sidestep Subsidies Fight", 6.5 Inside US Trade / "Froman Skips WTO Ministerial On Sidelines of OECD, Punke Attends", 6.5 Inside US Trade / "WTO's Azevedo Warns of Slow Progress in Doha Talks as July Deadline Approaches", 6.5 Bridges Weekly)
 - 대사급 전체회의(6.1), OECD 통상장관회의(6.4)에서도 'gateway issue'인 농업(국내보조, SSM) 관련 의견대립이 반복되면서, 7월 말까지 상세한 수준의 작업계획 수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우세
 - * WTO 사무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, 정치적 결단을 포함한 회원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
 - 미국·EU 등 선진국들은 관세감축 수준이 낮아질 경우 Rev.4상의 농업 시장접근 신축성을 개도국에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
 - 중국·인도 등 개도국들은 DDA 협상의 '개발' 차원(development dimension)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SSM, SP, 식량안보 공공비축 영구 해법, LDC 패키지 등을 작업계획의 필수 요소(must-haves)로 강조
- **(농업) 농업보조 감축에 대한 미국-중국간 대립 지속**
 ("House Ag Leaders Urge Challenge Of Developing Country Farm Subsidies", 6.5 Inside US Trade / "U.S. Conditions Cuts Of Its Subsidy Programs To Agricultural Tariff Cuts", 6.5 Inside US Trade)
 - 미국은 자국의 농업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농업 부문의 상당한 관세 감축 및 주요국(중국·인도·EU)의 보조금 감축 요구
 - 미국 업계·의회*는 중국의 최근 WTO 농업보조 통보 내역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, 對中 개도국 신축성 부여에 반대
 - * (업계) 중국이 AMS 산정([관리가격-(86~88년)국제가격]*생산량)시 총생산량 대신 정부구매물량을 적용하여 de minimis 이내로 수치를 낮췄다고 지적
 - * (의회) 6.3. 하원 농업위 '외국농업보조 청문회'에서 중국의 면화 가격지지 조치로 인한 국제 면화가격 하락 등을 비판하면서 WTO를 통한 해결 촉구

1

- **(NAMA) 농업 부문 진전 없이는 NAMA 협상 진전 불가능 확인**
 ("NAMA Stalled Too", 6.2 WTD / "Industrial Goods Negotiators Still Waiting For Clear Signal From Agriculture Talks", 6.1 WTO News)
 - 회원국 전체 대상의 NAMA 협상그룹 회의(6.1)에서 의장이 제안한 5가지 관세감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, 입장차* 재확인
 - * 개도국들은 농업협상의 명확한 목표수준 설정 없는 NAMA 협상 추진, 개도국 신축성(개도국 우대(S&D), 불완전상호주의) 축소 가능성 등에 우려 표명
 - 의장은 지난 몇 주간 상황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, NAMA 목표 수준이 농업협상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논의 독려

2. 발리패키지 후속조치

- **(TFA) OECD 통상장관회의(6.4)에서 조속한 TFA 발효 촉구**
 ("TFA", 6.5 WTD)
 - 현재 7개국이 수락서를 기탁(발효를 위해 108개국 필요)하였으며, EU (29개국으로 카운트)는 10월까지 기탁 예정
 - OECD는 정책 브리핑(6.4)을 통해 TFA 발효시 무역 비용이 12.5% ~17.5% 절감됨으로써 특히 저소득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
- **(개발) WTO 최빈개도국(LDC) 그룹, LDC 이슈의 조속한 진전 촉구**
 ("An LDC Crisis of Confidence in Geneva", 6.1 WTD)
 - 사무총장 주재 그린룸 회의(5.29)에서, LDC 회원국들은 발리에서 합의된 4개 LDC 이슈*(best endeavor 조항)의 후속논의 부진을 우려하면서 10차 각료회의까지 구속력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촉구
 - *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, DFQF(무관세·무쿼터) 시장 접근, 특허 원산지 단순화, 면화 보조 철폐
 - 아울러, LDC 회원국들은 주요국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농업/NAMA 협상 진행방식(투명성 부족)에 대한 시스템적 우려도 제기

- 3. 복수국간 협상 : OECD 계기에 서비스협정(TISA)협상 조찬 회동
 ("Stepping Up TISA", 6.5 WTD / "Wikileaks TISA Leak Reveals Deep Divisions On Five Priority Negotiating Areas", 6.5 Inside US Trade)
 - TISA 협상 참가국들은 다음 달 중간점검회의(stocktaking exercise)를 거쳐 여름휴가 이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
 - * 현재까지 금융, 통신, 전자상거래, 유통, 배송 서비스는 진전이 있었으나 해운, 도로 운송, 단기 서비스 공급자 이동, 국내 규제, 항공은 제한적 진전

2